

남재현 해수부 차관, 2026년 도선사의 날 기념식 참석

- 도선사 유공자 포상 및 도선서비스 발전을 위한 현장 의견 청취

남재현 해양수산부 차관은 9월 1일(화) 서울에서 열린 ‘제5회 도선사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해운·항만 발전과 항만 안전에 기여한 도선사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였다.

이번 행사는 선박 대형화와 기상여건 변화 등 급변하는 항만 환경 속에서 도선사의 역할과 중요성을 되새기고, 보다 안전하고 전문적인 도선서비스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남 차관은 이날 도선 분야 유공자에게 포상을 수여하고, 도선 작업의 안전성 강화와 도선사 양성·지원체계 개선 등 현안에 대해 한국도선사협회 및 해운·항만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누었다.

남 차관은 “도선사는 선박과 항만을 안전하게 연결하는 국가 경제의 핵심 안전망”이라며, “해양수산부는 국내 도선사 업계가 변화하는 해운·항만 환경에 발맞춰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와 교육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담당 부서	해운물류국 항만물류산업과	책임자	과 장	정동원 (051-773-5770)
		담당자	사무관	송은정 (051-773-5771)

